

이흥재의 세상만사



논설고문

시골 촌뜨기가 어쩌다 서울에 가면, 길을 모르니 택시를 타야 했다. 택시에 오르면 묵적지만 말하고 난 뒤 얼른 입을 닫았다. 선불리 말하다 보면 사투리가 튀어나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아, 촌놈이 됐구나." 택시 기사가 금방 눈치를 쫓 수도 있기 때문이다.

택시미터(taximeter)는 계속해서 돌아가고, 요금 올라가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철렁 하는데, 행여 기사가 돈을 줌다 받기 위해 일부러 말리 돌아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촌놈들은 늘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별건 대낮에도 코를 빼어 간다는 서울 사람들 아닌가.

하지만 언제인가부터 달라졌다.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하철은 1호선부터 9호선까지 말 그대로 사통팔달(四通八達), 수인선·분당선·경춘선 등 경기도·강원도 일부에 인천공항까지 가지 못하는 곳이 없게 됐고, 지하철을 타면 바가지요금 같은 쓸데없는 걱정을 할 필요도 없으니, 우리 같은 서민들, 우리 같은 촌놈들로서는 참으로 좋았다. 덜렁 1호선뿐인 광주엔 언제쯤 이런 좋은 세상이 올까.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광주 도시철도(지하철) 2호선 건설 이야기다. 그동안 건설이나 포기나를 놓고 말들이 많았다. 급기야 연기된까지 나왔다. 그만큼 어렵

고 어려운 문제였다. 그것은 마치 '고르디우스의 매듭'(Gordian Knot)처럼 보였다. 그 옛날 고르디우스는 제우스 신에게 바칠 마차를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게끔 신전 기둥에 복잡하게 묶어 매듭을 지었다. 이 매듭을 푸는 사람이 아시아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수백년이 흘러 이 지역을 지나가던 알렉산더 대왕은 단칼에 매듭을 잘라 버렸고 실제 아시아를 정복하게 됐다.

지하철 2호선 시민이 원했다

그렇다면 '재정 악화'라는 기둥에 단단히 묶인 광주 지하철의 매듭은 누가 풀 수 있을 것인가. 길은 보이지 않고, 돌로 갈라진 광주 사회의 갈등은 깊어만 갔다. 그렇게 5개월이 흘렀다.

하지만 최근 원안대로 건설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미 결론이 난 마당에 이제 와서 월가월부한다는 것은 때늦은 뒷북치기일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이쯤에서 지나온 과정을 한 번쯤 되돌아보는 것도 그러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2호선 건설 논란은 지난 7월 취임한 윤장현 시장의 재검토 지시로 시작됐다. 재정 적

자가 심하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에 무엇이 우선순위에 따라 분 뒤 결정하겠다는 것이었다. "건설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재검토해 보겠다." 그런 말을 수차 반복했지만 시장의 속내는 건설을 포기하는 쪽에 훨씬 가까워 보였다.

무엇보다도 윤 시장이 파악한 광주시의 재정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해마다 급증하는 사회복지비 예산에다 유니버시아드대회 운영·시설비, 세계수영선수권 개최, 군공항 이전, 지하철· 시내버스· 제2순환도로 재정 보전 등등, 매년 빚을 내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는 구조였다.

여기에 2호선 건설에 드는 최대 1조 원 안팎의 시비 부담, 개통 후 예상되는 운영 적자 등은 미래세대를 압박하는 요인이 수밖에 없었다. 돈! 돈! 돈! 결국 돈이 문제였다. 돈 말고 다른 문제는 없었다.

윤 시장은 결국 시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시민들에게 설명한 뒤 의견을 묻기로 했다. 시민들은 시의 재정난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교통 복지 등을 위해서는 2호선 건설을 우선순위에 뒀어 한다는 의견이 보다 우세했다. 사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지하철에서 수익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지하철은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 수단이 아니라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윤 시장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던 것 같다. "대형 공사나 행사 등에 대한 병행한 점검이 필요하다." "관성에 의해 달려가고 있는 미래 기관차"를 한 번쯤은 세워 놓고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윤 시장은 이런 말들을 쏟아 냈다.

고집 꺾고 내린 외로운 결단

'관성에 의해 달려가고 있는 미래 기관차'. 멋진 비유였지만 직접적으로 광주도시철도를 지칭하는 것으로도 보였다. 지하철에 들어갈 돈을 복지로 돌려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화랑'이 되고자 하는 것은 '시민시장'으로서의 그의 위상에 걸맞은 것이기도 했다.

윤 시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온화한 사람이다. 하지만 같이 일을 해 본 사람들은 '어릴 때 매우 고집이 세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좋게 말하면 소신이 있다는 것이다. 평소 그런 윤 시장의 소신을 볼 때 2호선은 아무래도 안 되는 쪽으로 가우는 것 같았다. 지하철 건설의 길목에 빨간불이 켜지고 차단기가 내려지는 듯했다.

하지만 끝내 반전(反轉)이 일어났다. 윤 시장은 원래 건설과 개발 위주의 정책에 부정적 시각을 견지해 온 편이었다. 그럼에도 공익과 교통복지 및 인프라 구축을 바라는 시민들의 여론을 뒤집을 수는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허리를 졸라매더라도 일단 건설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2호선이 건설되면 1호선과 환승 연계되면서 대중교통 활성화란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것은 물론 지하철의 효율을 보다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윤 시장은 손을 들었다. 며칠 전 '원안대로 도시철도 순환선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결자해지(結者解之)였다. 매듭을 묶은 이도 그였고 매듭을 풀 이도 그였다.

그는 '시민시장'답게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자신의 고집을 꺾었다. 다소 시간을 걸렸지만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시민 여론에 따라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청와대의 '심사시' 정도는 아니겠지만 광주시에도 무능과 독단의 '오상시'가 있다는 말까지 들려오는 판에 내린 고독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하다. 이제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국비 추가 확보 등을 위해 정부 및 국회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전남 25만명 수돗물 못 먹는다

공급률 87%...합평, 47%로 가장 열악

전남 수돗물 공급률이 87%로, 주민 25만여명이 수돗물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말 전남 수돗물 공급률은 인구(전체 192만7000명) 기준, 87%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민 25만1000명이 수돗물 공급을 받지 못해 지하수, 하천수, 계곡물 등을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2012년 말 기준, 목포

가 99.8%로 가장 높았고 진도 98.3%, 고흥 92.9%, 순천 92.5%, 여수 91.6%, 영광 91.3% 등 6곳이 공급률 90%를 넘었다.

반면 합평은 수돗물 공급률이 46.6%로 주민 2명 중 1명이 수돗물 혜택을 보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2017년까지 수돗물 공급률을 90.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내년에 124개

지구에 총 1018억원(지역발전 특별예산 722억원·도비 70억원·시군비 22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도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41개 지구·773억원), 도시지역 식수원 개발(16개 지구·112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67개 지구·133억원)을 통해 수돗물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상수도 시설이 미흡한 농어촌과 섬에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y@kwangju.co.kr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남센터 '본궤도' 조달청에 설계 의뢰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전남도내 최초 정부 출연기관 형태의 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남센터의 설계를 지난달 말 조달청에 의뢰하는 등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남센터 건립 사업은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동신대 한의학과 등 도내 한의학 관련

기본 인프라와 전남의 천연자원을 연계해 한의학을 전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지난 2013년 사업 추진 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 전남센터 건립 계획을 최종 확정된 바 있다. 2만3000㎡의 부지는 동신대에서 무상 제공하

고, 국비 116억원, 지방비 59억원, 한의학회 연구원 19억원 등 모두 19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전남도는 정부 수시예산으로 묶여 있던 2013년과 올해 각각 국비 10억원씩 20억원을 확보하고, 앞으로 국비 잔액과 지방비를 사업 일정에 맞춰 투입할 예정이다. /윤현식기자 chadol@

상무시민공원 '광주독립운동기념탑' 완공



국민 70% "남북 통일 필요"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일연구원(최진욱 원장)이 4일 공개한 '통일 준비를 위한 남북통합 국민여론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9.3%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같은 민족이니까'(36.9%)를 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전쟁 위험을 없애기 위해'(24.2%), '이산가족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17.9%), '선진국이 되기 위해'(15.4%) 순이었다. 그러나 통일의 이익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에 대해 상당한 입장을 보였다. '국가에 이익이 된다'는 응답자는 60.5%였지만 '내게 이익이 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34%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광주와 전남지역 항일 독립 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광주독립운동기념탑이 4일 오후 광주시 서구 상무시민공원에 완공됐다. 제막식은 5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480㎡ 부지에 조성한 기념탑은 높이 14m에 탑신과 상층부분은 화강석과 알루미늄 등으로 만들어졌다. 7억8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으며 서재필 박사를 비롯해 양한묵 선생 등 광주·전남지역 독립유공자 986명의 명단이 탑 기단에 새겨졌다. 학생들이 기념탑을 둘러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별딩을 찾으세요

※ 부작용 : 수술초기 야간 빛반전, 노안리식 수술시 건조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심의필 제 140611-중-59153호

지중화공사구간취소공고안내

화순군 화순읍 만연사교차로 ~ 자치샘앞 삼거리까지 지중화 사업 중단에 따른 지중화구간 확정지역 취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①취소공고사유
화순군으로부터 진각로 지중화사업 중단 요청

②지중화 확정지역 취소구간
■ 화순읍 진각로
■ 만연사교차로 ~ 자치샘앞 삼거리
■ 전남 화순읍 훈리 12-9 ~ 향림리 86-6번지

③기타 문의사항
광주전남본부 배전건설팀 (☎062-260-5464)

2014년 11월 26일

KEPCO 광주전남본부 배전건설팀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클리코엔 골드**

가격대폭 할인행사중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섭취입니다. /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 조절합니다.

1.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주)유한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d'm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 1899-3975 H.P 010-3598-7080